

서틀 리전에서 활동.

오늘 밥다다는 특히 사랑이 많고 신봉의 순수한 느낌을 많이 가진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너희가 신봉의 느낌을 가진 그 정도에 따라 너희는 그만큼 복이 많다. 행운의 공여자 아버지는 그의 복 많은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밥다다는 각 자녀의 바브나, 사랑, 봉사의 차트를 갖고 있다. 구(舊)세계의 육군원수들이 각자의 지역과 군대에 대한 도표를 갖고 있듯이, 아버지도 역시 그의 모든 봉사 장소와 봉사자들에 대한 도표를 갖고 있다. 한곳에 앉아서도 바바는 이 도표를 보면 봉사할 줄 아는 모든 자녀가 어디에 있든 그들의 봉사 방법과 노력의 속도를 언제나 볼 수 있다. 바바는 각 자녀의 하루 동안의 단계를 뚜렷하게 눈앞에 본다. 미묘한 지역, 서틀 리전의 활동은 무슨 힘으로 계속 이루어지느냐? 현재 세상에는 모든 것을 기능하게 만드는 갖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는 반면, 황금시대에는 모든 것이 원자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서틀 리전의 활동이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느냐? 거기서 활동이 기능하게 만드는 데 어떤 힘이 쓰이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것은 빛의 지역이니, 빛의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기능하겠느냐? 그것이 빛을 기반으로 하겠느냐, 다른 뭔가를 기반으로 하겠느냐? 오늘 바바는 거기에 자녀들이 나오게 만들어서 각자의 시험지를 검사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활동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카르나타카에서 온 너희들은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다시 찾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어서,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다시 찾은 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깊은 비밀을 하나 나눠주겠다. 카르나타카에서 봉사의 도구인 두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한 쌍이다 (호리데푸쉬와 다디와 다디 찬드라마니). 이 한 쌍은 카란하르와 카라반하르다. 하나는 사랑의 화신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의 화신이다. 하나는 법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다른 하나는 오직 사랑으로만 충만하다. 그러면서도 카르나타카의 꽃밭은 결실이 매우 풍성하다. 거기엔 봉사를 잘 하는 우수한 자녀들이 많다. 밥다다는 너희 2중의 외국인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너희 본래의 종교를 알아보는 특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준다. 이 종교로 돌아온 뒤에 너희는 이제 빠른 노력가로 전진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사랑과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대다수 중에서 지각에 의심을 가득 지닌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2중의 외국인인 너희들의 특별함이다. 이 특별함 때문에 밥다다는 너희에게 보답으로 사랑과 기억을 보내준다. 마찬가지로 카르나타카에서 온 자들도 역시 사랑과 바브나를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쉽게 아버지에게 속할 수 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은 순진하다. 그들은 지식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은 우선 처음에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지식을 듣고서 그들은 계속 전진한다.

일부 어떤 나라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사랑을 키우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먼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이 지식을 취한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 모두 순진한 주님, 아버지에게서 사랑 받는다. 이해하느냐? 너희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 너희가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뒤에 멀리 남겨져 있다고는 결코 생각지 마라. 너희들은 항상 밥다다 가까이에 있다. 밥다다는 너희에게서 바브나를 볼 뿐, 너희의 언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모두 서틀 리전에서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바에게 말해야 한다. 무엇을 기반으로 거기서 모든 것이 기능하느냐? 여기서 빛(전기)이 나가면 너희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를 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발전기가 따로 있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서는 모든 것을 기능하게 만드는 데 어떤 동력을 사용하느냐? 천사의 형태가 육신의 형체를 고취하느냐, 육신의 형체가 천사의 형태를 고취하느냐? 말 좀 해봐라! 거기서는 활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서틀 리전에서는 활동이 생각의 힘, 특히 순수한 생각의 힘을 토대로 계속해서 기능한다. 브라마가 세계를 창조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기억된다. 이처럼 그는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임이다. 모든 것이 신호를 토대로 기능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천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의 힘, 생각의 힘을 통해서 기능한다. 밥다다가 생각의 힘의 스위치를 켜면 모든 것이 나타난다. 먼 곳에서도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의 일들에 관한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너희에게 해주었다. 여기서는 악덕 없이 지냄으로써 너희가 세 세계 모두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 너희들의 지각의 요가가 완전히 정제되게 해라. 너희들의 생

각이 서틀 리전에 도달하려면 기억하는 너희의 힘이 매우 깊고 모든 관계의 본질로 철저히 정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선은 대단히 강력해서 마야는 이것에서 어떤 방해도 할 수 없다.

밥다다가 있는 곳은 매우 화려하다. 여기 같지 않다 (전기가 자꾸 나가고 있었다). 서틀 리전이 드러나는 것은 전체 사이클을 통틀어서 오직 지금뿐이다. 그래서 지금 서틀 리전에는 눈부신 화려함이 있다. 나중에는 너희들 모두를 위해 황금시대 세계의 화려함이 있을 것이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서틀 리전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결국 그 지역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있다. 다른 영혼은 아무도 서틀 리전을 경험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브라마와 브라민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신봉자들은 어떤 특별한 장면 하나만 비전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지만, 너희에게는 서틀 리전이 집이다. 아버지 브라마가 거주하는 곳이니 너희들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오직 브라민인 너희들만 서틀 리전의 축제행사들을 경험할 수 있고, 오직 너희들만이 그곳에서의 만남과 여흥을 경험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멀리를 들으려고 아래쪽에 앉아 있었다.) 2중의 외국인들의 생각이 바바에게 와 닿고 있다. 너희가 비록 그 아래에 앉아 있지만 너희들은 아버지 앞에 있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가 너희 2중의 외국인들 모두에게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뿐 아니라 밥다다는 먼 곳에 있지만 생각의 힘을 써서 가까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도 역시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주고 있다. 바바는 또 카르나타카에서 온 자녀들 모두에게도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고 있다. 마두반 거주자들은 가슴속에 앉혀져 있으며 모든 것을 냄비에서 직접, 뜨거운 상태로 받는 자들이다. 너희는 지칠 줄 모르며 봉사의 아주 좋은 증거를 보인다. 너희들 대다수는 잠을 정복하는 미덕을 아주 잘 발휘한다. 잠을 버림으로써 너희는 봉사에 매우 잘 협조한다. 너희들은 “지 하지르” (제가 여기 있습니다)와 “지 하주르” (네, 나의 주님)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바바가 너희가 하는 봉사의 증거를 등수대로 보여주는, 봉사할 줄 아는 영혼인 너희 마두반 거주자 모두에게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낸다. 앗차. 밥다다로부터 모든 자녀에게 많고 많은 사랑과 기억을 보낸다.

밥다다가 그룹을 만나심.

1. 성공의 토대는 너희들이 초연한 수준이다.

너희들 모두 세계 시혜자의 단계에 끊임없이 안정해 있으면서 봉사에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느냐? 세계 시혜자라 함은 무한한 봉사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있을 수 없다. 세계가 무한하니 세계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무한한 단계를 지속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다. 세계의 시혜자는 아버지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남들에게 한결같이 봉사하되 그들에 대해 초연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봉사에 대한 애착에도 초연함을 유지할 것이다. 봉사에 대한 애착은 금사슬이며, 너희를 무한한 데서 유한한 것 안으로 끌어당기는 굴레다. 그러므로 봉사에 초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하여라. 그러한 단계를 가진 자들은 변함없이 성공의 화신이 될 것이다. 성공을 얻는 쉬운 방법은 사랑하면서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언제라도 너희에게 성공이 결여된다면 그 이유는 너희에게 초연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연함을 가진다는 것은 너희 몸에 대한 의식에서, 신성한 관계들에 대한 애착에서, 신을 위한 봉사의 시설물들에 대한 애착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너희에게 이 초연함이 부족하면, 성공도 역시 결여된다. 그러니 너희들 자신을 그 정도로 한결같은 성공의 화신이라 여기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희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여기느냐? 너희가 어떤 지시를 받을 때는 너희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여기고 그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 자란 어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지시를 받을 때 너희 자신을 아직 어리다 여김으로써 너희는 한결같이 성공할 것이다. 다 자랐다는 것은 무한한 태도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해하느냐?

너희들 모두 만족하고 있느냐? 마음에 뭔가 떠오르면 그것이 뭐든 연장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렇지만 언제든 연장자들이 너희에게 이르는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일단 너희가 그것에 관해 얘기하면 너희의 책임은 끝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연장자들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러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역시 필수적이다. 뭐든 마음

속에 품고 있지 말고 얘기하고서 가벼워져라.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뭔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봉사과 너희의 발전을 거듭 방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볍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희에게 지시를 주면 너희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서 가벼워진다.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어떤 특별한 힘이 필요하냐? 자기변화의 힘이다. 자아변화의 힘을 가지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 성공할 것이다.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끊임없이 지녀라. 남들이 변하면 너희도 변하겠다고 생각지 마라. 남들이야 변하든 말든 “나는 변해야 한다! 나는 아르주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라. 변화라는 면에 있어서는 항상 “나 먼저”가 되게 해라. 이것에서 너희가 맨 앞에 섬으로써 너희는 모든 것에서 첫 등수를 차지할 것이다.

너희 자신을 빚는다는 것은 순금이 된다는 뜻이다. 남들을 빚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인 금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순금이나? 뭐든 진품은 가치가 있는 반면, 섞인 것은 가치가 덜하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한결같이 순금의 단계로 유지해라.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떠한 약함에도 접촉된 적이 없는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이슈나브다. 어떤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트빅(순수)한 산스카르들을 가진다. 일부는 라조구니한 데서 사트빅하게 되고, 다른 일부는 타모구니한 데서 라조구니가 되며, 나머지는 세 단계가 뒤섞인 것을 갖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바이슈나브라 함은 완전히 안전하게 지낸다는 뜻이다.

2. 트리칼다르시의 단계에 한결같이 안정해 머물으로써 낭비의 계좌를 끝내라.

너희들 모두 제 자신을 수백만 배로 복 있다고 여기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모든 행위를 행하느냐? 고귀한 생각, 말,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는 더불어 낭비적인 것과 강력한 것을 섞어서 갖고 있기도 하느냐? 때로는 낭비적이 되고 때로는 강력해지는 게임을 너희가 하고 있지는 않겠지? 낭비적인 것은 뭐든 너희가 1초에 수백만을 잃게 만드는 반면, 강력한 것은 뭐든 너희가 1초에 수백만을 벌 수 있게 해준다. 단 1초의 낭비도 너희가 소득을 많이 잃게 만들 수 있다. 너희가 번 것을 계좌에 저축해두는 것처럼, 너희는 계좌에 손실도 역시 쌓아둔다. 손실의 계좌가 더 크면 너희의 소득은 감춰진다. 그러니 너희의 낭비가 멈췄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느냐? 너희가 트리칼다르시(시간의 세 측면을 아는 자)의 단계에 안정해 머물 때는 낭비가 모두 쉽게 끝날 수 있다. 트리칼다르시 단계에서 내려와서 시간의 단 한 측면만 고려하면서 행동하면 그럴 때 너희는 낭비를 일으킨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이나? 시간의 한 측면만 아는 자들이냐, 시간의 세 측면을 아는 자들이냐? 한결같이 트리칼다르시 단계에 안정해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가 언제나 성공의 화신이 될 것이다. 이해하느냐?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끊임없이 머물면서 언제나 고귀한 배역을 행하는 자들은 특별한 배우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특별한 배우냐, 평범한 배우냐? 특별한 배우의 특별한 미덕은 자기봉사와 세계 봉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3. 몸과 육신의 관계들에 대한 의식의 애착을 끊는 정복자가 되어라.

낡은 세상에 살면서도 너희들 자신을 합류시대의 브라민이라 여기며 계속 발전하고 있느냐? 합류시대의 브라민은 철시대의 세계에서 이미 떠났다. 그러므로 그의 시선은 결코 낡은 세상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낡은 몸, 낡은 세상, 어떤 친척에게도 이끌리지 마라. 만일 너희가 공식적으로 발행된 여권 없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 든다면 감옥에 수감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만일 너희가 아버지의 승인 없이 뭔가를 하면 마야가 너희를 가둔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의 친척들을 생각하지는 않겠지? 너희는 애착의 정복자들이냐? 만일 너희가 아주 약간이라도 애착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악어가 너희의 작은 일부를 붙들고 있는 것과도 같아서 그 다음엔 너희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다! 마야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너희를 완전히 삼킬 것이다. 그러므로 애착을 조금도 갖지 마라. 애착에서 벗어나 한결같이 자유롭게 지내라.

4. 봉사할 줄 아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여러 생을 위해서 축복을 쌓아두었느냐? 마두반은 축복의 땅이다. 너희는 이 축복의 땅에서 축복으로 앞자락을 가득 채워서 집으로 돌아가려느냐? 미래 여러 생을 위해서 충분히 많이 축적했느냐? 이곳의 분위기와 여기서 너희가 경험한 것을 항상 간직하겠느냐? 아니면 그저 1년이나 1년

반 정도만 지니려느냐? 이 분위기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지냄으로써 너희 자신을 강력하게 만들어라.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한, 만일 이 분위기를 강력하게 의식한다면 너희는 그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너희는 여기서 그런 마하비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겠지?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야가 너희에게 왔다는 편지를 쓰려느냐? 너희들은 분위기에 의해 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자들이다. 마하비르인 너희들 모두 너희의 동반으로 남들을 계속 물들여야 한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너희는 은밀한 등불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항상 깨어있는 자들은 남들은 깨울 수 있다.

5. 밥다다가 2중의 외국인 형제자매들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제 자신을 등대라고 여기느냐? 등대가 하는 일은 모든 이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가 등대이며 발전소로서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느끼느냐? 너희들은 배회하는 영혼들에게 옳고 쉬운 목적지를 보여주려고 돌아갈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두 가지를 마음에 간직해라. 1. 영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식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식별하는 힘을 써라.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맥박을 짚어봄으로써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너희의 식별하는 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용해라. 2. 모든 보물들에 대한 경험을 변함없이 지니고 다녀라. 모든 보물을 이미 경험해본 자들은 남들에게 그 경험들을 쉽게 줄 수 있다. 너희의 경험을 단지 들려주는 것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역시 경험을 주겠다는 목표를 언제나 간직해라. 너희들은 모든 경험의 화신으로서 돌아갈 것이냐? 그저 말하는 자가 아닌, 경험의 화신이 되어라. 모든 관계와 모든 힘을 경험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칭호를 받겠느냐? 모든 힘을 다 경험한 자의 칭호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다. 모든 미덕을 다 경험한 자의 호칭은 '미덕들의 화신'이며, 모든 관계를 다 경험한 자의 칭호는 '모든 이를 다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너희는 칭호를 몇 개나 갖고 있느냐? 너희들은 칭호들을 다 갖고 집에 돌아가겠지? 저 학생들이나 부처의 근무자들은 메달을 받는다. 너희는 이제까지 메달을 몇 개나 받았느냐? 메달을 전부 다 차지했느냐? 너희가 메달을 더 많이 가지면 모든 이의 주의가 너희에게 쏠린다. 너희가 모든 성취의 화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눈과 이마가 드러내게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서 집에 돌아갈 것이냐? 앗차.

축 복: 모든 이에게 순수한 느낌과 고귀한 소망만 품는, '백조의 지각'을 지닌 거룩한 백조가 되어라. 백조의 지각이란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언제나 고귀하고 순수한 생각들을 하는 자라는 뜻이다. 먼저 모든 영혼이 가진 느낌을 식별하고 나서 그것들을 훈습하는 자가 되고, 어떤 영혼에게서든 불순하거나 평범한 느낌은 결코 너희의 지각이 훈습하지 않게 해라. 항상 순수한 느낌과 고귀한 염원만 가지는 자들이 거룩한 백조들이다.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자비롭지 않는 뭔가를 보거나 들으면 그들은 자애로운 태도로 '자비롭지 못한' 것을 자비로운 것으로 변형시킨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고귀하고, 순수하며, 모든 영혼을 사랑한다.

슬로건: 사랑의 대양인 아버지가 너희를 통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 갠지스강이 되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